

연중 제 29 주일:

2016 년 10 월 16 일 (다해)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38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62)	봉헌 (213)	성체 (165)	파견 (270)
<p>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p> <p>1 구역: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p> <p>2 구역: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p> <p>3 구역: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율리안나.</p> <p>4 구역: 김 유스티나(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릅타,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p>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16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0/23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성인 복사
10/30	박 니콜라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6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1/13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20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성인 복사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0/9/16	\$345	0.00	\$200

새 신자 교육 9월 부터 시작

9월 4일부터, 한인공동체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습니다. 주위에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실분이나,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 마가렛 자매님께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어서와! 술은 처음이지?

하중은 데오도시오

카프성모병원 알코홀치료센터장

'아담한 체구의 평범한 여고생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차례, 소주 3병은 마셔요." 최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자해까지 하게 되자 치료를 결심하게 되었다. 청소년 음주는 더 이상 특별한 비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5%이고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청소년도 25%나 됩니다. 아이들이 술을 마셔야 얼마나 마시겠느냐며 흥이나 조금 내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청소년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3~4병 이상 마셔도 기분이 조금 좋아질 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20대 초반까지 성장합니다. 특히 이성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마지막에 자리 잡습니다. 이 시기에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술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본래의 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면 졸음, 두통, 구역을 유발해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뇌는 아직 계기판도 브레이크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여 술에 취했을 때 더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청소년 음주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이 한 해 4천 건이나 되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아예 인격 자체가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기에 술에 노출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에서는 며칠간 쉬운 유명인들이 등장합니다. 맥주는 시원하고, 소주는 순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매스미디어는 술을 마시는 것이 얼마만큼 즐겁고 유쾌한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조절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극히 일부입니다.

공동체 소식

평협 임원회의: 10/16 (일) 오후 7시

10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10월 16일(주일) 저녁 7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미사시작 30분전에 삼중기도와 목주기도 5단을 바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주기도 성월을 맞아,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가을 피정 계획

그 동안의 여러가지 사정상, 우리 공동체가 2016년에 피정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정에 관하여,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구역장이나, 총구역장에게 전하여 주시면, 2주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16년 가을 피정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체육대회 - 베이커스필드 한인회 주최

하기와 같이 한인 체육대회를 하오니, 팀을 구성하셔서, 참가 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6년 10월 16일(일요일), 12시

장소: Silver Creek Park(7011 Harris Road)

종목: 배구, 족구, 배드민턴, 무료 건강검진, 독감 예방접종

출전팀은 한인회에 미리 연락 바랍니다. 661-444-0356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하신 후 악마의 유혹(루카 4,1-13)을 받으십니다. 악마는 주님께 재물과 권세와 광을 약속하며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외면하고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제력을 상실하고 순간의 만족만 추구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입니다. 중독이 그렇고 술이 그렇습니다. 사실 중독자가 된 이후 치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편이 훨씬 쉽고 효율적입니다.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음주 통제 정책 강도는 22위에 불과합니다. 선진국들은 술을 흥청망청 즐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며 향유하는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청소년들에게 하신 충고의 말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만들려면 시끄러워야 합니다. 그 의미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기존 문화와 시대 조류에 도전하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조금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문화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의 하나입니다."

(교리 상식)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도 성체가 있나요?

동방 정교회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곧 성찬례를 통해 실체 변화를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체 축성용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데 반해, 동방 정교회에서는 누룩을 넣은 빵을 사용한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개신교 교파들은 성체성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성공회의 경우 미사 형식과 용어가 가톨릭 교회와 매우 비슷하지만 성체의 실체 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체 교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